

제17회 민속예술경연
참가작품

江陵端午굿

강원도

때 : 1976. 10. 22~24
곳 : 진주공설운동장

江陵端午祭 (無形文化財 第13号)

가. 由 来

江陵 端午굿은 이미 李朝 中期의 文献에 散見되는 嶺東 第一의 郷土神祀로서 無形文化財 13号로 指定돼 있는 郷土祭이다.

秋江 南 孝温 (1454년~1493년)의 文集 「秋江冷話」에 의하면

嶺東民俗 每於三四五月中 扞日迎巫以

祭 山神 富者馱載 貧者負載 陳於鬼席 吹
笙鼓瑟 連三日 醉飽然後下家.
라 記錄돼 있다.

許 筠의 「惺所覆韻藁」에도 癸卯년에
(1603년) 江陵에서 端午굿을 구경한 記
録이 있다. 위의 記錄들은 이 때에 이
미 江陵 端午굿이 盛大한 郷土祭로서 이
름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端午굿의 特徵

祭天儀式의 遺風으로서 豊年祭와 龍王굿 그리고 大関嶺이라는 峻嶺을 넘나 들어야한다는에서 시작된 行路의 安全을 祈願하게되는 江陵 端午굿은 嶺東一帶의 全巫覡이 動員되어 賽神하는데 大関嶺国師城隍을 비롯하여 配位인 女城隍, 大関嶺山神과 여러 城隍이 모두 江陵出身 또는 江陵과 有関한 人格神 이고 端午굿 기간에 계속 官奴들에 의해 仮面戲가 演戲된다는 特徵을 갖고 있다.

다. 祭儀日程

江陵 端午굿은 음력 3月20日 神酒를 빛는데서 시작되어 4月14日의 城隍迎神에서 부터 本格化되어 5月6日의 燒祭까지 20余日에 걸쳐 진행되는데 祭儀가 本格化되는 5月1日부터는 굿과 官奴仮面戲 그리고 각종 遊興과 娛樂이 곁들여 절정을 이루며 현재에도 굿가간에는 연일 10여만의 群衆이 雲集한다.

江陵 端午굿은 通例的으로

3月20日 神酒謹釀

4月1日(初端午) 献酒와 巫楽.

4月8日(再端午) 献酒와 巫楽.

4月14日 奉迎出発.

4月15日(三端午) 奉迎, 大関嶺城隍
祭 및 山神祭.

4月27日(四端午) 巫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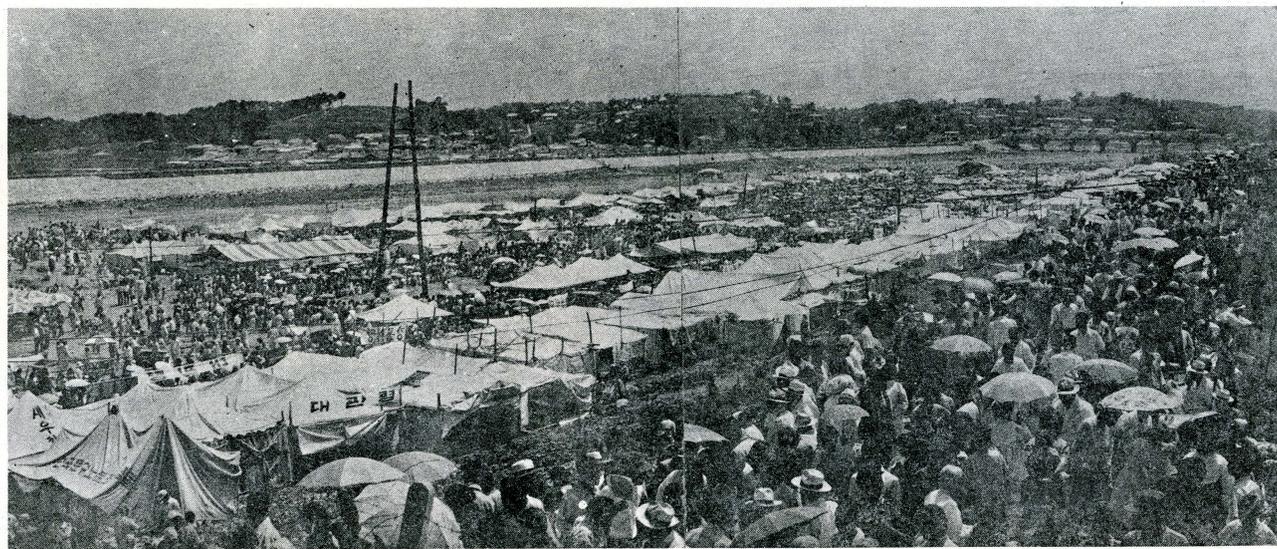
5月1日(五端午) 本祭始作, 官奴仮
面戯.

5月4日(六端午) 巫楽, 官奴仮面戯

5月5日(七端午) " ", " "

5月6日(八端午) 焼祭, 奉送.

의 順으로 치루어지고 있다.



(作品解説)

江陵端午굿



第一科場 入場

大関嶺国師城隍을 奉迎하는 行列은 太平簫, 杖鼓 등 樂隊를 先頭로 하여 戶長 都使令과 男女巫覡 그리고 祭物을 들고 ち성을 드리는 村民들로 長蛇陣을 이룬다. 城隍祠 근처에서 本 神竿木에는 致誠을 드리는 마을 사람들이 실, 白紙, 형 접을 걸어 厄매기를 하였고 巫覡과 마을 사람들은 山遊歌

꽃밭일세 꽃밭일세

4月 보름 꽃밭일세

지화자 좋다 얼시구 좋다

4月 보름 꽃밭일세

를 되풀이하여 흥을 돋우고 国師城隍을 奉迎한다.

第二科場 端午굿

端午굿이 시작된다. 굿에 앞서 戶長이 初獻官이 되어 大関嶺国師城隍祭가 있게 된다. 祭亭이 끝남과 동시에 都巫堂은 부정굿을 치고 마을 사람들은 치성을 드린다.

第三科場 官奴仮面戲

굿이 벌어지는 굿堂 옆에서는 官奴들이 仮面戲를 演戲하며 굿堂의 흥을 돋운다.

第四科場 燒祭

굿이 끝나면 神竿을 비롯하여 神位등을 불사르고 굿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各自의 所望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축원 하며 端午굿의 大團圓을 맺는다.



출 연

고증 및 지도

- 고증 최 승 순
(강원도 지방문화재 위원)
- “ 이 춘 영
(강원도 지방문화재 위원)
- “ 정 의 윤
(강원도 지방문화재 위원)
- 기획 이 기 원
(강원일보 문화부장)
- 지도 홍 문 표
(관동대학 교수)
- “ 황 정 자
(강릉여자고등학교 교사)

출연자 및 배역

- | 제 | 관 | | | |
|---|---|-------|--|--|
| | | 김 태 진 | | |
| | | 윤 상 범 | | |
| | | 김 응 섭 | | |
| 무 | 격 | | | |
| | | 이 금 옥 | | |
| | | 김 봉 용 | | |
| | | 심 길 자 | | |
| | | 김 용 택 | | |
| | | 김 영 숙 | | |
| | | 김 재 춘 | | |
| | | 정 채 란 | | |

농 약

이 필 원
박 순 업
정 성 시

가 면 회

권 선 화
최 회 순
서 미 회
김 미 애
김 길 래
장 상 명
최 정 남

부 락 민

박 승 우
김 정 궁
최 대 회
최 돈 석
이 상 범
권 혁 창
서 철 수
최 봉 민
김 홍 주
장 정 용
심 각 섭
전 영 재
김 덕 회
서 상 을
김 을 래
권 학 준
석 회